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사무소	작성팀	마케팅지원팀
	해외동향보고서	담당자	하원정 소장
		일시	2024.10.

CEPA Insight

- 한 인니 지역통화거래 시행 보름 전 “현재 4개국만 시행 중”
- 루피아 환율 계속 강세 보여... “15,100까지 급락”
- 인도네시아에서 사업 핵심 요건 “상표 등록과 라이선스 계약서 등록”
- “2024년 2분기 인도네시아의 국제수지 실적 개선”
- “전자서명은 합법! 통신법 6가지 조건 갖춰야”

■ 한 인니 지역통화거래 시행 보름 전 “현재 4개국만 시행 중”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과 한국은행은 9월 30일부터 양국의 23개 은행에서 루피아화-원화 간 현지 통화 거래(LCT)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진행 상황은 더딘 상태이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8개국과 LCT 협력을 체결했으나, 시행 중인 국가는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 중국에 한정되어 있다.
- 인도네시아 정부는 싱가포르, 한국, 인도, 아랍에미리트 등 4개국과의 협력 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들 국가의 고객이 현지 통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8개 부처로 구성된 LCT 태스크포스는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해 현지 통화 사용을 촉진하고자 협력협정을 체결했다.
- 2024년 상반기 LCT 거래액은 47억 달러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LCT 이용자는 3,850명으로 1.5배 증가했다. 이는 2018년 LCT 시행 이후 38배 증가한 수치로, 정부는 양자 거래에서 현지 통화 사용을 가속화 하기 위해 정책 시너지와 부문 간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출처 : 한인포스트, 2024.09.15.)

■ 루피아 환율 계속 강세 보여... “15,100까지 급락”

- 9월 20일, 미 달러 대비 인도네시아 루피아 환율이 강세를 보이며 15,145루피아로 마감했다. 이날 루피아는 9월 19일보다 0.56% 상승해 Rp15,100/US\$ 수준까지 떨어졌으며, 9월 13일 이후 1.62% 이상 강세를 기록했다. 한편, 미국 달러 인덱스(DXY)는 0.1% 상승한 100.71로 소폭 올랐다.

- 루피아의 강세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과 관련이 있으며, 기준금리가 5.25-5.50%에서 4.75-5.00%로 낮춰지자 글로벌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 또한, 루피아 환율은 2024년 말까지 4.4%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자본이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개발도상국으로 다시 유입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루피아의 강세가 글로벌 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반응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출처: 한인포스트, 2024.09.22.)

<p>(출처 : 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국가지역통화거래(LCT) TF 8개부처 협력협정 체결></p>	<p>(출처 : 한인포스트) <9월 셋째 주 주간환율 루피아화 강세></p>

■ 인도네시아에서 사업 핵심 요건 “상표 등록과 라이선스 계약서 등록”

- 상표 등록증과 라이선스 계약서 등록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 면허 취득에 필수적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식약청(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BPOM)의 라이선스 및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Standar Nasional Indonesia, SNI) 인증도 중요하다.
- 9월 12일, 지적 재산권 컨설턴트 니디아 칼랑기예가 온라인 세미나에서 “브랜드 등록증과 라이선스 계약 등록은 규제 준수를 지원하며, 시장에서의 제품 차별화와 평판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브랜드 소유자들은 사전 모니터링과 침해 감지 메커니즘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권장했다. 니디아는 브랜드 등록과 관련된 법적 위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가 이념과의 충돌,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 구별력 부족 등으로 인해 상표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 한인포스트, 2024.09.15.)

■ “2024년 2분기 인도네시아의 국제수지 실적 개선”

- 2024년 2분기 인도네시아 국제수지 실적이 개선되며 대외 부문 회복력이 강화되고 있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2분기 국제수지는 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1분기의 60억 달러 적자에서 크게 감소했다.

- 경상수지는 30억 달러(GDP 대비 0.9%)의 적자를 기록하며 1분기의 24억 달러 적자보다 나아졌다. 상품 무역에서는 석유 및 가스 적자의 감소와 비석유 및 가스 무역의 안정적인 흑자가 기여했다. 그러나 서비스 부분에서는 여행 서비스로 인해 적자 폭이 확대되었다.
- 자본 및 금융 계정도 개선되어, 2분기에는 2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유입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직접투자는 긍정적인 경제 전망 덕분에 지속적으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글로벌 경제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며 정책조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한인포스트, 2024.09.15.)

▣ “전자서명은 합법! 통신법 6가지 조건 갖춰야”

- 정부는 전자 서명(TTE)의 사용이 전자 거래 시스템에서 문서의 신원 및 무결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부 네자르 파트리아 차관은 모든 전자 서명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며, 전자 통신 거래법에 따라 서명자의 신원과 문서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여섯 가지 조건과 부인 방지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 부인 방지 요소는 서명자와 관련된 전자 서명 생성 데이터만 포함되며, 서명 이후의 변경 사항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서명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 전자 서명 과정에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네자르 차관은 공인전자서명이 암호화와 인증 과정을 통해 보안성이 입증되었다고 강조하며, 정보통신부가 전자 인증서 발급자 및 제공자를 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사이버 범죄를 줄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디지털 서명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출처: 한인포스트, 2024.09.08.)



(출처 : 한인포스트)

<2024년 2분기 인도네시아 국제수지 인포그래픽>



(출처 : 한인포스트)

<전자 서명(Tanda Tangan Elektronik, TTE)>

■ 시사점

-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의 루피아화-원화 현지 통화 거래(LCT) 시행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싱가포르, 인도 등 협력을 강화해 고객들이 현지 통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LCT 거래액이 2024년 상반기에 47억 달러로 증가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것으로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책 시너지와 부문 간 조정의 필요성을 보인다. 동시에, 루피아의 강세는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와 관련이 있으며, 외국 자본 유입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환경 속에서 상표 등록 및 라이선스 계약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법적 위험 이해와 권리 보호가 필수적이다. 또한, 개선된 국제수지 실적은 외국인 투자 유입을 촉진하고 있으며, 전자 서명(TTE) 사용이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